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脉論) ⑥

問曰 汝作夢之時 又問 汝言語施為運動 又問 汝言語施為運動 又問 汝言語施為運動

透五蘊山 渡生死河 又問 汝言語施為運動 又問 汝言語施為運動

스님이 대답했다. "이미 다르지 않다 면 이 몸 그대로가 그대의 근본 법신 이며, 이 법신이 곧 그대의 근본 마음 이다. 이 마음이란 끝없는 옛적부터 지 금과 전혀 다른 것이 없어서 생사라는 것이 없다. 따라서 생멸(生滅)도 없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함도 없으며, 좋거나 나쁜 것도 없으며, 오거나 가는 것도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으며, 승속(僧俗)이나 노소(老少)도 없으며, 성인도 범부도 없으며,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며,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으며, 인과도 없으며, 힘도 없고 모양도 없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산이 나 강, 석벽(石壁) 따위도 장애가 되지 않으며, 나타나거나 숨거나 가고 올에 지재하고도 신통하다. 오온(五蘊 : 물 질과 정신의 양면)에 걸치는 일체의 유

물었다. "그대가 꿈을 꿀 때, 꿈 끈 것이 그대의 육신인가?" 대답했다. "예 저의 육신입니다."

又問 汝言語施為運動 又問 汝言語施為運動 又問 汝言語施為運動

마음이란 옛날과 지금 다를 바 없고

옳고 그름도 성인도 범부도 없다

즉자법신 시여본심 此心從無始曠大劫來 亦無修證 亦無因緣 亦無功力 亦無相續 亦無斷續 亦無生滅 亦無長短 亦無高下 亦無遠近 亦無內外 亦無前後 亦無左右 亦無上下 亦無東西 亦無南北 亦無十方 亦無三世 亦無一切 亦無所有 亦無所無 亦無所是 亦無所非 亦無所是 亦無所非 亦無所是 亦無所非

위법)의 산을 벗어나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므로 모든 업도 이 법신을 구속하지 못한다.

此心微妙難見 此心不同色相 亦無生滅 亦無長短 亦無高下 亦無遠近 亦無內外 亦無前後 亦無左右 亦無上下 亦無東西 亦無南北 亦無十方 亦無三世 亦無一切 亦無所有 亦無所無 亦無所是 亦無所非 亦無所是 亦無所非

이 마음은 미묘해서 보기 어렵고, 이 마음은 물질의 모습과는 같지 않으며, 이 마음은 곧 부처이다. 사람들이 다 보려고 하지만 광명한 가운데서 손 발을 움직이고 하는 것이 마치 강가의 모래알 같지만 물어보면 전혀 대답하지 못함이 마치 허수아비 같다. 모두가 자기의 활동인데도 어찌서 알지 못하는가.

김원각(시인·역경위원)

대학로는 분명 젊은이들의 거리다. 그래서 때론 위 태위태하다. 늘 거리의 가수들이 공연을 벌이는가 하면, 쪽죽죽들이 귀음을 쏟아내며 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아니다. 문예회관, 학술진흥재단, 한국방송다 학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곳은 비로소 문화의 거리가 된다. 지관 큰스님께서 삼장(三藏)의 발을 일구시며 후학

지관스님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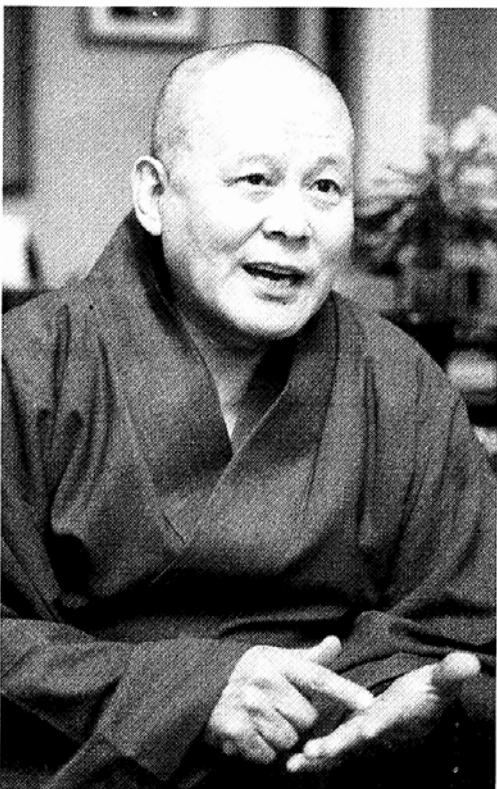
을 길러내시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도 거기에 있다. 현실과 아득히 먼 것 같은 불교가 현실 한복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상징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대학로에서 지관 큰스님을 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대 사회의 제문제들, 이를테면 정보화나 환경 문제 등에 대한 큰스님의 고견을 들었다.

“불자로서의 자긍심 찾자”

— 최근 들어 '21세기 인류의 대안은 불교다' 하는 말들이 여러 방면에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안'은 구체성을 확보해 가지 못하고 '구호'에 머물고 있는 듯 보이고,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또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

— 우선 '한국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대화 이후 한국불교는 급격한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적용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서구화의 과정에서 오는 혼돈과 새로운 모색 사이에서 늘 힘겨워했다고 하는 것이 온당한 진단일 테니까요. 이러한 문제는 비단 불교권뿐 아니라 전통 사회의 가치 체계를 온축하고 있는 여타의 집단들도 마찬가지로 아니었던가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급하게 불교가 무엇을 했느냐고 다그치기 전에, 오히려 전승 승가의 가치체계가 그 대극점에 선 서구화 또는 자본주의화라는 변혁과 육망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 본연의 어떻게 지켜왔는가를 긍정적으로 돌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사회가 뒤늦게 '불교가 대안이다' 하고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행 착오가 따랐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불교의 현대화 등 비주체적이고 일방적인 불교의 사회적 적응 논리가 강하게 있었으니까요.

— 어슬픈 사회 적응 또는 현대화는 '세속화'이기 쉽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불교가 대안이다' 할 때 '불교'라는 게 무엇인가, '불교'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정당하게 사회화해 온 교단의 전통과 그 영향권의 문화까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봅니다. 관념적인 불교의 진리만을 자산으로 보지 말고 1600여년을 이어온 한국 불교의 고등하고 올바른 승가와 불교 문화의 역사적 자산을 재인식하고 대안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불교인 스스로가 자기 비하나 범주주의를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어쩌면 냉소와 비하감은 서구 자본주의가 초래한 무의식적 전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단내 구성원들은 무게 있는 자산을 자랑스런 태도로 힘찬 자신감과 건강한 비판 그리고 따뜻한 화합을



- 1932년 경북 영일 생 47년 해인사에서 자운(慈雲) 스님을 은사로 득도 57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졸업 63년 마산대 종교학과 졸업 76년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졸업(철학박사) 60~70년 해인사 강원 강주 70~72, 93~96년 해인사 주지 74년 중앙종회 의원 75~98년 동국대 신학과 교수(현 신학과 명예교수) 86~90년 동국대학교 총장 87년 문화재 전문위원 90년(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현재)

류가 지켜야 할 유산이란 뜻이죠. 따라서, 그 유산이 있게 한 불교 정신의 전승 주체인 수행 승가도 분명히 인류의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 그렇다면 재가 불자 또한 기본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해야 할 것이. 우선 자긍심을 회복하려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자세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실천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생태주의적 삶은 지구 보편의 도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오해를 지켜온 재가 불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앞서가는 환경지킴이였을지 분명합니다. 함부로 살생 하지 않아 생애의 순환을 방해하지 않았으며(살생하지 말라), 순결의 서약을 지켜 가정과 사회를 정직히 하였으며(사욕 하지 말라), 사물의 정직한 분배로 경제 윤리를 수호하였으며(거짓말하지 말며,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음주하지 말라) 즉 오계를 지키는 일의 옹호·경제·사회윤리를 아우르는 불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가장 오래되었지만 언제나 새로운 삶의 원리인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결코 새로운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의 삶으로 실천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니까요.

만 수행 승가의 경제적 문제 등에 대한 대안도 교단 내에서 활발하게 의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림 등 전통 사찰의 경제적 기반이 대부분 관광정책의 범주에 예측되어 있으니까요. 선원을 담으로 가린다고 하여 또는 사하촌의 관광지화를 저지한다고 그 성스러움이 지켜진다고 믿는 것도 지나치게 소박한 생각입니다. 수행 승가가 본분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가의 눈높이는 정책과 교단의 지도력이 발휘되고, 나아가 수행 승가 구성원 모두가 사회와 인류의 승승으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뼈아프게 수행할 때 한국 승가는 반드시 '인류의 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승가는 역동적인 잠재력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과 석굴암이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인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할 텐데,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분량에서부터 압도되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읽어야 할 경전이 있을 법한데요. 저는 평소 세 가지 경전만큼은 꼭 읽기를 권합니다. <법화경>과 <화엄경의 보현행원품> 그리고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대승의 심지법문을 기반으로, 대승의 윤리관과 계율정신을 아람답게 실천 '법화경'은 포살을 통해 독송과 교육을 정제화해 왔습니다. 이 전통을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없는 자비심의 발로인 관음신앙의 소의경전인 '보문품'은 독송의례를 통해 이미 대중화한 경전이며, 수행과 원행의 더없는 이상적 모델인 '보현행원'은 더할 수 없는 보살의 표상입니다. 더불어 정진하는 선종의 뿌리깊

Advertisement for '지장보살본원경' (Zijang Bosal Bonwon Gyeong) and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Zijang Shinang Zijang Gido Beop). Includes book covers and descriptions of the texts.

Advertisement for '관음신앙·관음기도법' (Gwanimsinang Gwanimgido Beop) and '육바라밀 수행법' (Yukbaramil Suhaeng Beop). Includes book covers and descriptions of the texts.